

세계정당미디어와 함께 국민을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동1C 구간 광복동행도 관통 (명동출발1C 영수순 프로그램 개시)
- 무전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신제 실시
- 예약: www.hpdynews.co.kr 0801-320-7700



남자도 해냈다

11일 베이징 올림픽 그린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남자단체 결승 한국대 이탈리아의 경기에서 한국의 박경모가 승리를 확정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베이징 국가올림픽체육센터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B조 예선 한국과 독일전에서 최임철이 슈팅을 시도하다 반칙을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흔들림 없는 '神弓' 올림픽新 '명중'

한국 남자 양궁도 세계 정상임을 재확인했다.



남자 양궁 대표팀은 11일 베이징올림픽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며 올림픽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날 중국 베이징 올림픽 그린 양궁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임동현(22·한국체대), 이창환(26·두산중공업), 박경모(33·인천계양구청)가 출전한 한국남자 대표팀은 이탈리아를 227-225(240점 만점)로 물리치고 승리했다.

16강전에서 부전승으로 올라 8강에서 폴란드를, 준결승에서는 개최국 중국을 물리치고 결승에 오른 한국은 세계랭킹 2위의 이

강호 이탈리아와 대결전 끝 2점차 승리

여자 단체 금이어 한국 양궁 무적 과시

탈리아를 속삭이는 점전 끝에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8강전에서 폴란드를 224-222로, 준결승에서는 중국을 221-218로 물리치는 등 아슬아슬한 승부를 펼친 한국은 마지막 결승전에서도 이탈리아를 상대로 힘겨운 경기를 펼쳤다.

1엔드에서 먼저 2점을 앞서나간 한국은 2엔드에서 6개의 화살 중 무려 5개를 10점에

명중시키는 등 상승세를 타며 117-111까지 앞서나갔다. 그러나 세계 2위 자리를 지켜온 이탈리아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이탈리아는 3엔드에서 5개의 화살을 10점에 명중시키면서 점수를 만회했고 반면 한국은 단 1개의 화살만 10점을 기록하는 등 흔들리면서 172-170로 추격을 허용했다.

승부가 결정된 마지막 4엔드는 손에 땀을 쥐게 했다. 한국보다 먼저 화살을 쏘 부딪을

떨칠 수 있었던 이탈리아는 4엔드 1라운드에서 199-199로 동점을 만들었고 서로 마지막 남은 3발의 화살로 승부를 결정짓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올림픽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한국의 저력 앞에는 이탈리아도 어쩔 수 없었다. 이탈리아의 마지막 사수였던 마우로 네스폴리가 7점을 기록하는 결정적 실수를 한 반면 한국은 마지막 사수 박경모가 침착하게 9점을 기록하며 2점차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한국은 남자 단체전에서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 이어 이번 베이징올림픽까지 올림픽 3회 연속 우승에 성공하며 역시 올림픽 6회 연속 우승을 이뤄낸 여자팀과 함께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민희 '신들린 선방' 우생순 신화 계속된다

여자핸드볼, 독일 꺾고 첫 승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독일을 완파하고 첫 승을 거둬 '금빛 우생순'을 향해 전진했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1일 오후 중국 베이징 올림픽스포츠펠트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3위 팀인 독일을 30-20, 10점 차로 격파했다. 지난 9일 러시아와 1차전에서 9점 차로 뒤지다 후반 팽추격을 벌여 29-29로 비긴 한국은 이로써 1승1무로 8강 진출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독일과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역대 전적에서 5승1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갔다. 한국은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준결승에서 독일에 26-25로 이긴 이후 한 번도 지지 않다가 최근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조별리그에서 26-32로 패한 적이 있다. 경기가 시작된 후 한국은 몸이 덜 풀렸는지 1, 2점 차로 끌려갔다. 체력과 힘에서 밀

려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했고 상대 수문장 클라라 볼터링의 잇따른 선방에 회심의 슈팅이 계속 막혔다.

하지만 한국이 독일 골문을 여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전반 16분 안정희의 측면 돌파로 7-7 동점을 만들었고 1분 뒤에는 오성욱의 돌파 슈팅이 이어지며 8-7 역전에 성공했다.

이 때부터 한국은 점수를 벌리기 시작했다. 8-8 동점에서 한국은 홍정호의 7m 던지기과 허순영의 속공, 김은아의 외곽포가 작렬하며 11-8, 3점 차로 달아났다.

12-9로 앞서 전반을 마친 한국은 후반에도 기세를 멈추지 않았다. 한국은 17-14로 앞선 후반 9분부터 홍정호의 7m 던지기를 시작으로 9점 차로 뒤지다 후반 팽추격을 벌여 29-29로 비긴 한국은 이로써 1승1무로 8강 진출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독일과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역대 전적에서 5승1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갔다. 한국은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준결승에서 독일에 26-25로 이긴 이후 한 번도 지지 않다가 최근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조별리그에서 26-32로 패한 적이 있다. 경기가 시작된 후 한국은 몸이 덜 풀렸는지 1, 2점 차로 끌려갔다. 체력과 힘에서 밀

슈팅을 잡은 한국은 더 이상 추격할 힘을 잃은 독일 골문에 맹공을 퍼부었다. 후반 14분 23-15에서는 허순영과 홍정호가 연달아 속공으로 점수를 쌓고 문필희가 외곽포를 두방 터트리며 26-15, 11점 차로 점수를 벌려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날 승리로 탄력을 받은 핸드볼 태극남자는 13일 오후 스웨덴과 조별리그 B조 3차전을 벌인다.

여자농구, 러에 분패



여자농구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장신 군단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은 11일 베이징 올림픽 농구체육관에서 열린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절대 열세를 당고 분전했지만 72-77로 패했다. 최윤아가 13점(3점슛 3개), 변연하가 12점을 넣었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12-34로 크게 뒤졌다. 1승1패가 된 한국은 13일 호주와 3차전을 치른다. 1쿼터에서 15-24로 밀려난 한국은 2쿼터 들어 강압수비로 바꾸고 최윤아, 변연하의 3점슛이 터지면서 점수차를 좁혀갔다. 전반 종료 2분34초를 남기고 변연하의 3점슛으로 33-33 동점을 만든 한국은 이후 4점을 내줬지만 신정자의 골밑슛으로 35-37, 2점 뒤진 채 전반을 마쳤다. 한국은 종료 4쿼터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쳤다. 하지만 종료 2분여를 남기고 72-71로 앞서는 상황에서 잇따라 트레블링 반칙을 저질러 공격권을 넘겨 줬고 타티야나 셰골레바(13점)에게 잇따라 점수를 허용, 무너지고 말았다.

"펠프스에 비하면 난 아직 갓난아기"

"금메달을 또 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죠. 하지만 펠프스에 비하면 저는 아직 갓난아기입니다."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왼쪽)은 겸손했다. 11일 오전 중국 베이징 국가아쿠아틱센터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에서 박태환은 이 종목 세계기록(1분43초86) 보유자인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오른쪽)보다 빠른 전제 2위로 끝인하며 무난히 결승에 올랐다.

전날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따며 한국 체육사에 금자탑을 세운 데 이어 메달 추가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곧바로 이어진 공동취재구역 인터뷰에서 박태환에게 '펠프스의 8관왕을 저지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박태환 200m 결승행 후 기자회견서 겸손한 소감



박태환은 "물론 하고 싶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지 않느냐. 또 금메달 따면 좋다. 하지만 펠프스와 나를 비교하면 기록이나 기술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나도 준비를 많이 하고 운도 좋아 금메달을 땀지만 펠프스는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펠프스가 노리는 8관왕을 저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하지만 아테네 올림픽 6관왕,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7관왕에 오른 펠프스에 비하면 나는 갓난아기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태환은 언젠가는 펠프스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전했다. 그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 런던 올림픽에서 펠프스를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 역사를 이룬 전날 저녁은 어떻게 보냈느냐고 묻자 "일찍 잠들었다. 전화가 많이 왔는데 모르는 번호라서 못 받았고, 주로 문자메시지로 많이 받았고"고 답했다.

전날 밤이 종목 예선이 끝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많이 힘들다"고 토로한 박태환은 "스트레칭과 음악을 많이 들으며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 또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낸다. 선수촌 식사가 잘 나와 잘 먹고 있다"고 휴식 방법을 전하기도 했다.

임영철 감독 "독일전 정신력의 승리"

"우리의 정신력이 훨씬 나왔습니다." 11일 오후 중국 베이징 올림픽스포츠펠트체육관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독일과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30-20 대승을 거둔 한국 여자핸드볼대표팀 임영철 감독은 승리의 요인으로 굳건한 정신력을 꼽았다.

임 감독은 경기 직후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3위 팀이지만 우리가 정신 무장이 훨씬 잘 돼 있었다. 또 컨디션 조절에서 잘 된 점이 앞선 것 같다. 독일

이 전반 15분 이후 급격한 체력 저하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9일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 팀인 최강 러시아와 1차전을 29-29로 비긴 뒤 이날 세계선수권대회 3위 팀인 독일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 강력한 우승후보와 잇따른 대결에서 1승1무를 챙긴 한국은 8강 진출에 청신호를 켜 켜었다. 임 감독은 그러나 "만족하지도 않고 못하기도 않는다. 앞으로 더 많은 경기가 남아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